

티베트 스승에게 듣는 연기법의 지혜 게시 소남 갈첸 지음/하늘호수 펴냄/1만 8천원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쫑까빠 대사님(1357~1419)의 가르침중에서 공성과 연기법에 대해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이라 일컫는 〈연기찬탄송〉의 깊은 뜻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연기찬탄송〉 티베트원서와 이에 대한 티베트 본토의 큰 스승인 람림 린뽀체의 주석서를 바탕으로 한글로 번역해 한글티벳불교사원 광성사에서 이틀에 걸쳐 8차례 총 13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불교에 대한 소개를 다루었는데, '불교는 무엇' 이고 '부처님은 어떤분' 이신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저자는 연기와 공성이 둘이 아닌 하나, 즉 공성의 심오한 뜻을 연기로 완전히 깨달아 부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얻은 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자유자재로 설해주신 면에서 찬탄하는 중요한 논서이다. 김주일 기자

"삶의 방향과 정진, 가피의 길서 가능"



허공은 가득하다

지광 스님 지음
능인출판 펴냄
1만 3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자들이 기도공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가피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피란 무엇일까? 자신이 정한 방향을 향해 삶의 궤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의지, 그리고 한걸음 더 걸어가려고 하는 정진의 자세, 즉 실천적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에 있는 것이 가피라는게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오른쪽 사진〉의 지론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피란 단어에 익숙치 않다. 불교 특유의 용어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피를 체험하는 예가 흔치 않아서이기도 할 것이다. 가피란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단어이다. 흔히 가피를 현전가피, 몸중가피, 명훈가피 등 이렇게 체험자의 표현에 따른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전체, 그 어느 곳 어느 상황이건 모두가 가피이다. 가피의 세계는 자신을 던지는 곳에, 자신을 버리는 곳에, 이기심과 집착을 내려 놓는 곳에 피와 땀과 눈물을 머금고 태어난다. 삶의 방향과 정진은 그 가피의 길 위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자면 어두캄캄하다. 도대체 가피는 어디로 실종돼 버린 것일까? 잃어버린 가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개인적 고통과 세계적 난관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저자 지광 스님은 독자들에게 가피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밝힌다. 이 책은 여러해 전에 〈법보신문〉에 '가피이야기' 란 제목으로 연재된 글중 중복된 내용을 정리한 46편을 골라 한데 묶은 것이다.

책 제목을 〈허공은 가득하다〉라고 정한 이유를 저자 지광 스님은 "허공이 부처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가피 그 자체이기에 달리 다른 제목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한편 지광 스님은 1985년 서울 서초동에 능인선원을 열어 전법활동을 시작해, 사회복지법인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 운영중이며, 국내외 포교를 위해 능인불교선양원을 설립했다. 특히 불교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 능인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했다. 해외포교에 관심을 기울여 미국에도 국제대학 설립을 추진중이고, 중국 캐나다 태국 미국 등에 분원을 설립했다. 1999년 조계종 포교대상, 2003년 조계종 사회복지단체 대상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됐다. 2008년 서울대학교서 〈간화선 수행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정진〉 〈선, 명상의 향연〉 〈법고대통〉을 비롯한 여러 권의 수상집과 경전해설서, 교리서 등이 있다.



가피, 체험 통해 확신하게 되는 단어
신문연재 글 중 46편 골라 한데 묶어
이기심과 집착 내려놓으면 가피 생겨

지광스님이 말하는 가피의 명문장

-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수만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잘 사는 법은 결국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십시오.
- 위기는 변화로 나아가는 기회이며, 자신을 단련시키는 훈련입니다.
- 말은 공명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아끼지 마세요.
- 업이 있을 뿐 운명은 없습니다.
- 무아의 본질이 드러나려면 수없이 깨져야 합니다.
-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자신의 한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 완전한 몰입을 위해서는 완전한 방전이 필요합니다.
- 우리의 운명은 평소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과거의 생각이 지금을 만들었다면, 지금 생각은 미래를 만듭니다.
- 우리의 운명은 평소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례에 담긴 의미와 문제 살핀 철학서



불교의례

이성운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8천원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은 의례의 순서나 방법을 알려주는 의례집이 아니라, 의례에 담긴 의미와 문제를 살피는 철학서다. 또 의례의 상황별 광략에 따라 소리를 짓고 쓸기도 하여 문파마다 의식문의 차이가 생긴 전승의 문제에 화두를 던지는 문제작이기도 하다.

저자는 의례 설행이나 의문의 전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놓치지 않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다소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분하게 논의되는 철학적 견해에 대한 것들이기에 오랫동안 의례 현장서 불교의례를 연구하는 저자의 이런 노력과 시도가 더 의미 깊다고 하겠다.

"불교예경의 처음을 삼귀의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 크게 의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수계의식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부처님 혹은 불교와의 만남은 대개 예경으로 시작한다. 삼귀의에는 인사에 관련한 서술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귀의' 에 공경의 의미와 예경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경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불교의례' 라고 하면 스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절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참선 하고, 공양을 올리는 일상적인 행위가 모두 의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귀의를 할 때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스님들' 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가, '승가' 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참모임' 이라고 할 것인가. 또 대웅전에 예경할 때도 각단 존상에 예경할 때처럼 모신 존상의 명호를 부르면서 예경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49일간의 중음기간 그리고 재탄생의 길을 떠난다고 보는 불교적 윤회관에서, 매년 기일에 모시는 조상신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등, 이 책은 우리가 신행 과정에서 쉽게 접하는 의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의례 설행 그 너머의 문제까지도 깊이 그리고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펼쳐진 법석이라고 하겠다.

진리를 구하는 구법의 몸짓은 수행의례로 나타나고, 중생을 교화하는 몸짓은 공양과 시식의례로 드러난다. 구법과 교화의 의례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불교의 교리와 정신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설화 등 전통문화까지 고스란히 담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보고라고 하겠다. 이런 소중한 의례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불교수행의 완성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만큼 의례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바르게 설행하는 것이 깨달음에 한발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은 말한다.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는 법회의 시작인 귀의부터 수행, 공양, 시식을 거쳐 사후에 올리는 귀환의 몸짓인 다비까지, 전체 총 5부에 걸쳐 소개한다. 1부는 '귀의' 편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대중에게 귀의하는 몸짓의 의미와 그를 대표하는 삼귀의, 예경, 수계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아침저녁 예불의식으로 정착된 칠정례에 대한 논의를 중심에 두고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2부는 괴로움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는 '수행' 의 몸짓, 그 과정을 탐구한다. 진언과 송주, 염불과 예참, 좌선 그리고 출정(出定) 이후 수행자의 몸짓에 대해서 알아본다. 3부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몸짓, 불교의례
불교 현실적 실천이 바로 의례다

불교의 대표적인 공양의례인 '불공' 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양에는 부처님께 바쳐 올리는 공양으로 널리 알려진 '육법공양' 과, 향에서 공양물이 나와 일체 성현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마음속으로 관상하는 '운심공양' 이 있다.

4부서는 고통에 빠진 불특정 다수에게 보시를 베푸는 '시식' 의식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그것이 장치되어온 역사 등에 대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본질을 찾는다. 한국과 중국에서 시식의식은 비교적 그 원형이 잘 보존되었음에도 유학을 숭상한 문화로 인해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몸짓이라기보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주검을 처리하는 불교의례인 장례와 다비를 톺아본다. 관혼상제 같은 생활의례 중 불교에 남은 가장 정교한 의례가 장례의식이다. 전통 불교 다비작법은 대사스님이 열반하였을 때 쓰이던 것이었지만, 조선 중후기를 지나며 불교 일반장례법으로 정착되어 심지어 재가불자들의 장례에도 적용되며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임종과 장례, 봉안으로 나누어 불교의 몸짓을 살핀다. 김주일 기자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법당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